

김민재 '유럽 꿈' 이뤄질까... 'EPL 러브콜' 재점화

지난해 토트넘-베이징 구단간 합의 불발

올해 12월 계약 만료...이적료 낮아질 듯

국가대표 '괴물 수비수' 김민재(25·베이징궈안)의 유럽 진출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지난해 술한 이적설에도 중국 탈출에 실패했던 김민재의 유럽행이 이번엔 현실화될까.

영국 현지 매체가 김민재의 토트넘 이적설을 보도했다. 미리는 15일(현지시간) "토트넘이 지난해 여름 관심을 보였던 한국 대표 수비수 김민재 영입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면서 "런던 라이벌 첼시 경쟁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매체 풋볼런던은 국가대표 동료인 손흥민(토트넘)을 소환하며 "지난해 손흥민이 구단에 김민재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다"며 김민재가 손흥민과 한솥밥을 먹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2017년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에서 프로 데뷔한 김민재는 첫째 주전 자리를 꿰차며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다. 그해 8월에는 태극마크를 달고 A매치 데뷔전까지 치렀다.

전북에서 K리그 최고의 수비수로

자리매김한 김민재는 2019년 1월 전북에 이적료 600만 달러(약 66억원)를 안기고 중국 슈퍼리그 베이징궈안 유니폼을 입었다.

하지만 김민재는 중국 진출 후에도 꾸준히 유럽 무대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다. 실제로 지난해 외국인 에이전트와 계약을 맺고 유럽 이적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를 비롯해 라치오(이탈리아), PSV아인트호벤(네덜란드) 등 다수의 클럽이 관심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여름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난 안 베르통인(벤피카)의 대체자를 물색하던 토트넘의 레이더망에 김민재가 포착됐다. 손흥민의 추천까지 받으며 김민재에 관심을 보인 토트넘은 베이징 구단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최종 단계에서 무산됐다.

이적료를 낮추려는 토트넘과 높이려는 베이징 구단이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토트넘은 당시 김민재의 이적료로 900만 파운드(약 135억원)를 책정했지만, 베이징이 1500만 파운드(약 225억원)를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민재는 유럽 진출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아시아 축구연맹(AFC) 홈페이지를 통해 "유럽에서 플레이하는 것은 모든 선수의 꿈"이라며 "시즌이 끝나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즌 종료 후 다시 한번 유럽 문을 두드리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겨울 이적시장이 열리자 토트넘이 다시 김민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또 첼시와 아스널 등 런던 클럽들도 김민재를 주시하고 있다.

190cm의 장신에 스피드를 갖췄고, 어리지만 다양한 국제대회 경합을 보유했던 김민재는 유럽 클럽들에 매우 매력적인 카드다. 또 탄탄한 피지컬로 유럽에서도 통할 가능성이 크다.

토트넘은 김민재 영입 실패 후 챔피언스(2부리그) 소속의 스완지시티에서 조 로돈을 영입했지만, 올 시즌 주전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

조제 무리뉴 감독은 토비 알다베이르트와 에릭 다이어, 다빈손 산체스 등으로 중앙 수비를 구축하고 있는데,



30대가 넘어선 알다베이르트의 경우 이번 시즌이 끝나면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크다.

수비진 세대교체란 속제를 안고 있는 토트넘이 김민재 영입을 재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토트넘은 김민재를 비롯해 에데르 밀리타르(레알 마드리드), 밀란 슈크리

니야르(인터미란), 스벤 보트만(릴) 등 다수의 센터백에 관심을 두고 있다.

역시나 관심은 이적료다. 올해 12월 베이징과 계약이 만료되는 김민재의 몸값은 이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베이징도 김민재의 이적료를 챙기기 위해선 최소한 여름 전에 매각해야 한다. 변수는 베이징이 김민재를 대체

할 수비 자원을 찾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여름 영입한 보스니아 출신 수비수 토니 슈니치는 허난 쟈에로 완전 이적했다. 새로운 수비수 영입이 없다면, 베이징이 이적료를 포기하고 올 시즌까지 김민재를 계속 데려갈 수도 있다.

서선욱기자

"같은 이름 잘돼서 좋다"...KIA 최원준·두산 최원준 '덕담'



"저와 같은 이름으로 바꾼 뒤 잘 돼서 기분이 좋네요."

2020년 KBO리그 현역 선수로 등극된 최원준은 두 명이다. 두 선수 모두 지난해 '커리어하이'의 시즌으로 났다.

두산 베어스의 투수 최원준(26)은 시즌 중반 선발 투수로 자리를 옮겨 42경기(선발 18경기)에서 10승 2패 평균자책점 3.80을 기록했다. 데뷔 첫 두 자릿수 승이다.

KIA 타이거즈의 타자 최원준(24)

은 123경기 출장에 타율 3할2푼6리 2홈런 35타점 72득점을 기록했다. 선발이 다소 주춤했지만, 9월 이후 나선 50경기에서 타율 3할7푼1리로 맹타를 휘두르면서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두산 최원준은 근원 원(源) 높은 준(峻)이고, KIA 최원준은 으뜸 원(元)의 범 준(準)을 쓰고 있다.

비록 다른 한자를 쓰고 있지만 한글 이름이 같은 만큼, 친분이 없는 서로의 활약을 내심 지켜보곤 했다.

지난 시즌에는 첫 프로 맞대결도 있었다.

지난해 5월 15일 광주에서 6회말에 올라온 두산 최원준은 2사 1루에서 KIA 최원준을 맞아 유격수 뜬 공으로 아웃카운트를 올렸다.

KIA 최원준은 "작년에는 유격수 뜬공으로 물러났는데, 다음에 만날 때에는 꼭 이기고 싶다"고 아쉬워했다.

2020년 최고의 활약을 보낸 만큼, 올 시즌 나란히 서로의 활약을 응원했다. 두산 최원준은 "1년 군대 미루고 올 시즌 잘해보겠다는 기사를 봤다. 그런 마음가지가 정말 멋있는 거 같다"라며 "지난해 잘했던 것처럼 올해도 부상없이 잘했으면 좋겠다. 또 맞대결 기회도 많이 있길 바란다"고 미소를 지었다.

KIA 최원준은 "개명을 한 뒤 잘된 것을 보고 기분이 좋다"라며 "무엇보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10승을 한 것이 멋있다. 작년에 10승 했으니 올해는 15승을 했으면 좋겠다"고 미소를 지었다. 다만, KIA와 할 때는 우리가 이기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김미희기자

전남 '슈퍼루키' FW 서명원 영입하며 공격옵션 다양화



전남드래곤즈가 공격수 서명원을 자유계약으로 영입했다.

서명원은 차범근축구상 대상을 수상한 '슈퍼루키'로 U-12부터 U-19까지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린 초대형 유망주였다.

잉글랜드 포츠머스FC 유소년팀에 입단하여 활약하였으나 팀 사정으로 인해 9개월 만에 돌아왔다.

신평중, 신평고에서 활약한 그는 프로지향으로 대전시티즌(現대전하나 시티즌)에 입단하여 26경기 4득점 5도움을 기록하며 화려한 데뷔 시즌을 치렀다.

2년차에도 준수한 활약을 보여준 그는 울산현대로 이적하였으나, 울산에서 어린 선수에게 주어진 기회는 적었다. 경기 출전을 위해 강원과 부천으로 이적하였으나, 주전경쟁과 잦은 부상 등으로 많은 기회를 받지 못했다.

서명원은 "작년에 전남을 유심히 보면서 팀 컬러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오게 되어 기쁘다. 공격수로서 개인의 특질이나 도움도 중요하지만, 개인보다는 팀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

요하다고 생각한다. 팀에 잘 융화되어 감독님이 원하는 축구를 수행하고 좋은 성과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입단 포부를 밝혔다.

최진 스트라이커와 원포워드가 주포지션인 서명원은 폭발적인 스피드와 감각적인 슈팅, 날카로운 침투 패스 등 2선에서 자신의 장점을 활용해 창의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며 전남에서 부활의 날개를 펼칠 수 있을지 기대된다.

한편 서명원 선수는 포지션 FW(WF/SS), 95년생으로 신장 180cm, 체중 78kg.

K리그 출전 74경기 9득점 5도움, 선수경력 신평중, 대전시티즌(2014~15), 울산(2016~17), 강원(2018~19), 부천(2020)에서 활약한 바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정식 감독 부임' 루니, 데뷔전서 패배



시즌 도중 현역 생활을 마무리하고 정식 사령탑으로 나선 잉글랜드의 축구 전설 웨인 루니가 정식 감독 데뷔전에서 패배를 당했다.

루니 감독이 이끄는 데뷔 카운티는 17일(한국시간) 영국 데뷔의 프라이드 파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로더럼 유나이티드와의 2020~2021 잉글랜드 챔피언스(2부리그) 24라운드 홈 경기에서 0-1로 졌다.

이날 경기는 지난 16일 데뷔 카운티의 정식 사령탑에 오른 루니의 정식 감독 데뷔전이었다.

잉글랜드 국가대표로 A매치 120경기 출전에 53골을 터뜨리며 역대 최다 골 기록을 보유한 루니는 지난 16일 정식 감독으로 선임됐다.

2019년 8월 데뷔 카운티로 이적한 루니는 플레이 코치로 뛰다가 지난해 11월 필립 고루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경질된 뒤 감독 대행을 맡았다. 감독 대행으로 치른 9경기에서 3승 4무 2패를 기록한 루니는 구단의 신임을 얻어 정식 감독으로 부임했다.

정식 감독에 오르면서 2002년부터 이어온 선수 생활도 마무리했다.

하지만 루니는 정식 감독으로 나선 첫 경기에서는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답답한 경기를 펼치던 데뷔 카운티는 후반 41분 제이미 린지에 결승골을 헌납했고, 만회골을 터뜨리지 못한채 패배의 쓴 잔을 들이켰다.

데뷔 카운티는 4승 7무 12패(승점 19·골득실 -11)를 기록, 24개 팀 중 23위에 머물렀다. 이날 승리로 5승 4무 12패(승점 19·골득실 -9)가 된 로더럼은 23위에서 22위로 한 계단 올라갔다.

루니 감독은 20일 본머스전에서 정식 감독 첫 승에 도전한다.

뉴스

'아이언맨' 윤성빈, 첫 월드컵서 동메달

코로나19 여파로 1~5차 대회 불참 후 첫 출전



'아이언맨' 윤성빈(27·강원도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뚫고 출전한 2020~2021시즌 첫 월드컵 레이스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스킨레톤 금메달리스트 윤성빈은 15일(한국시간) 스위스 생모리츠에서 열린 국제 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월드컵 6차 남자 스킨레톤 경기에서 1, 2차 시기 합계 2분17초32를 기록해 3위에 자리했다.

윤성빈은 1차 시기에서 1분08초61로 5위에 그쳤으나, 2차 시기에서 1분08초71로 3위를 차지하며, 동메달을 땀다. 금메달은 알렉산더 가스너(2분16초85·독일), 은메달은 마르틴스 두쿠르스(2분16초86·라트비아)가 차지

했다. 윤성빈에겐 올 시즌 첫 레이스였다. 한국 봅슬레이·스켈레톤 대표팀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자가격리와 비용 등의 문제로 지난해 11~12월 진행된 월드컵 1~5차 레이스에 불참했다. 윤성빈이 공식 대회에서 나선 건 지난해 2월28일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당시 세계선수권 3~4차 시기가 마지막이었다.

폭설에도 윤성빈은 1차 시기(4초78)와 2차 시기(4초74) 모두 가장 빠른 스타트를 끊는 등 녹슬지 않은 기량을 자랑했다. 하지만 경기 감각 저하로 레이스 중반 이후 속도가 처지면서 3위에 만족해야 했다.

월드컵 6차 대회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며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2연패를 향한 첫걸음을 땀 윤성빈은 오는 22일 독일 뢰니히스제에서 열리는 월드컵 7차 대회에서 우승에 도전한다. 윤성빈과 함께 출전한 김지수(27·강원도청)는 2분18초77의 기록으로 13위에 머물렀다.

유망주 정승기(22·가톨릭관동대)는 1차 시기 25위(1분10초28)에 그쳐 상위 20명이 진출하는 2차 시기에는 오르지 못했다.

김미희기자



'몸값 적다' 최지만, 연봉 조정 절차 돌입

최지만(30·탬파베이 레이스)이 연봉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최지만은 연봉 조정 마지막 날인 16일(한국시간) 탬파베이와 협상을 마치지 못했다.

지난해 85만 달러를 받은 최지만은 올 시즌 최소 16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수준의 연봉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선수와 구단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최지만과 함께 라이언 야브로도 연봉 조정에 들어간다. 메이저리그에서 3시즌을 풀타임으로 뛰었지만 올해 처음으로 연봉 조정 자격을 얻었다. 최지만은 2019년 탬파베이에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다. 타율 0.261에 19홈런 63타점을 기록했다.

뉴스